

사업실패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배태준** 최윤희***

국문요약(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중소기업학회에서 편찬한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사업실패의 연구동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해외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둘째, 1979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연구에 편찬된 총 1,060편의 논문 중, 실패와 관련된 16편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 중소기업연구 이외의 한국의 실패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 분석으로 24편을 추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패 연구의 동향을 총 5가지 큰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실패예측, (2) 실패 전·후 감정, (3) 감정 이외 실패 비용, (4) 실패 원인, (5) 재창업 결정 및 성공요인이다. 기존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패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사업실패, 연구동향, 해외비교, 문헌고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8015)

** 한양대학교 창업융합학과 교수(tjbae@hanyang.ac.kr, 주저자 및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bigchoi@hanyang.ac.kr, 공동저자)

Business Failure: Overview and Research Trend*

Tae Jun Bae** · Yun Hyeong Choi***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 of ‘business failure’ from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In this review, first, we reviewed research trend of failur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at abroad, explored the major topics, and set forth the framework of classification. Second, we selected and analyzed 16 Korean articles in a refined search from total 1,060 articles published i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from 1979 to 2019. Third, in order to understand overall research trend in Korea, additional publication search was done by online database system using keywords, and 24 other articles were selected. As a result, five research themes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1) bankruptcy prediction, (2) emotion before and after failure, (3) costs of failure, (4) causes of failure, and (5) reentry determinants. We believe that this purposed review will offer future research issues regarding business failure.

[Keywords] Business Failure, Research Trend of failure, Comparative Study, Qualitative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5A8028015)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ntrepreneurship, Hanyang University (tjbae@hanyang.ac.kr, First Author)

*** Master Student,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bigchoi@hanyang.ac.kr, Co-Author)

I. 서론

창업 활동은 태생적으로 실패율이 높다. 미 통계국 기업 정보 추적편(U.S. Census Bureau's Business Information Tracking Series)에 보면, 창업 후 2년 내, 34%, 4년 이내 50%, 6년 이내 60%가 실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yward, Shepherd and Griffin, 2006). 국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여, 5년 내 실패율이 무려 72.5%에 이르러, OECD 17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7). 이렇듯 높은 실패율에 따른 위험부담은 자연스럽게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5; Weber and Milliman, 1997).

이에, 최근에는, 기업 실패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기고, 실패를 통한 학습을 인지하여,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Cope, 2011; Minniti and Bygrave, 2001; Shepherd, 2003; Shepherd, Patzelt and Wolfe, 2011),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관용(tolerance of failure)'을 강조함으로써 창업 실패로 인한 낙인 효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창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조언해왔다(Cave, Eccles and Rundle, 2001; Cardon, Stevens and Potter, 2011). 이에 발맞추어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실패 후 재창업"을 독려·지원하여 재창업을 자유로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국내에서도 재창업 지원이 2010년부터 시작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도전 지원기업 성과 보고서(중소기업청, 2017)'에 따르면, 지원받은 965개의 제도전 기업의 2년

내 생존율이 83.9%에 달해 전체 창업기업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는 분석에 따라 재창업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무되어 36개 기관에서 35개 이상의 재창업 지원이 운영되는 등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실패, 실패 후 극복, 및 재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와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 해외연구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국내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후, 국내 중소기업분야 대표적인 학회지의 하나인 '중소기업연구'에서 다루지고 있는 실패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파악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사업 실패의 개념 및 분류

2.1 사업실패 정의

사업실패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이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Walsh and Cunningham, 2016).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실패를 광의의 개념부터 협의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제시하였다(Watson and Everett, 1996; Everett and Watson 1998). 먼저, 가장 넓은 의미의 실패는 '중단(discontinuance)'이다. Fredland and Morris(1976)은 중단이 실패의 대리변수(proxy)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단이 사업실패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익이 나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

각되면서 현 체제에서의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아프거나 은퇴를 하면서 경영권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verett and Watson, 1998). 이런 이유로 사업실패를 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Wennberg and DeTienne, 2014; Justo, DeTienne and Sieger, 2015). 반면, 가장 협소한 의미의 사업 실패는 ‘파산 (bankruptcy)’이다(Hall and Young, 1991). 파산은 법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정의하는 매우 명쾌한 개념이지만 파산은 국가마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실패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실패로 인정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한다(Ucbasaran, Shepherd, Lockett and Lyon, 2013).

최근,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업실패의 개념은 Ucbasaran et al.(2013, p175)이 제시한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능력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중지’이다. 이렇듯 학자들마다 사업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실패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2.2 사업실패 연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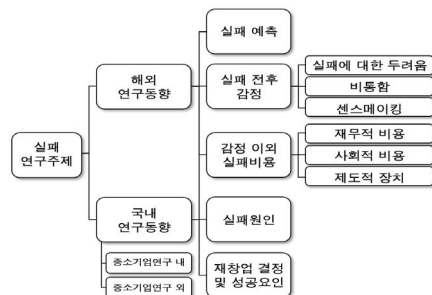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사업실패 연구를 조망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패연구를 종합하고, 분류의 틀을 제시하면서 정리한 선행연구는 두 편이다. <표 1>에 제시된 분류의 틀을 정리하였다. 첫째, Ucbasaran et al.(2013)은 사업실패의 단계(Process)에 따라 기존 연구를 재분류 하였

다. 그들은 (1) 실패의 정의, (2) 실패여파(aftermath), (3) 실패의 사회 심리 단계, (4) 결과물,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분류를 하였다. 두 번째, Walsh and Cunningham (2016)은 (1) 실패예측, (2) 조직 쇠퇴, (3) 실패원인, (4) 실패 후 학습, (5) 실패 감정, (6) 실패 영향, (7) 실패 후 회복 등 총 7개의 범주로 분류를 한 후, 각각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표 1> 선행연구 분류 틀

구분	Ucbasaran et al. (2013)	Walsh and Cunningham (2016)
실패 연구 분류	(1) 실패 정의 (2) 실패 여파 (3) 실패의 사회적 심리적 단계 (4) 실패의 결과	(1) 실패 예측 (2) 조직 쇠퇴 (3) 실패 원인 (4) 실패 후 학습 (5) 실패 감정 (6) 실패의 영향 (7) 실패 후 회복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류의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의 실정에 맞는 분류의 틀을 다섯 개 범주를 통해 제시하고 선행 연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1>에 분석 프레임워크를 정리하였다.



<그림 1> 실패 연구주제 분석 프레임워크

Ⅲ. 해외연구현황

해외 연구현황을 알아보는 일차적인 목표는 국내 실패 연구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기 위해, 세부 영역별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기존 두 편의 리뷰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논문들을 본 연구의 분석 흐름에 맞춰 고찰하였다.

3.1 실패 예측

기업의 실패를 예측하는 연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FitzPatrick, 1932; Smith and Winakor, 1935). 초기의 연구는 실패하는 기업이 존속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FitzPatrick(1932)는 실패한 기업과 성공한 기업 각각 19개사의 13개 재무비율을 비교하여, ‘순자산부채비율(Net Worth to Debt)’과 ‘순이익순자산비율(Net Profit to Net Worth)’의 두 개의 재무비율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Smith and Winakor(1935)은 183개의 실패기업을 분석하여, 도산에 직면할수록 ‘총자산대비 유동자산 비율(Current Assets to Total Assets)’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 단순히 유의미한 재무비율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 부실에 관한 개별 재무비율의 예측력을 검증해보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를 ‘단일변량도산예측모형’이라고 한다(Balcaen and Ooghe, 2006). 대표적으로 Beaver(1966)는 38개 산업에 걸쳐 79개 부실기업과 79개 정상기업의 30개 재무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순이익총부채비율(Net income to Total Debt)이 부실 1년 전 92%로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아냈다. ‘단일변량도산 예측모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지만(Chen and Shimerda, 1981; Deakin, 1972; Pinches, Eubank, Mingo and Caruthers, 1975), 곧 여러 재무비율을 동시에 결합하여 살펴보는 ‘다변량 예측모형’이 등장하게 되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최초의 다변량 예측모형은 Altman(1968)의 연구이다. Altman(1968)은 제조회사의 도산을 예측하는데 다변량 판별분석법(MD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를 사용하여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결합된 Z-score 모델을 개발하였다. Z-score를 통해 도산 5년 전 36%, 2년 전 72%, 1년 전 95%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그 후, 개량된 Zeta 분석모델을 포함하여, Altman(1968)의 Z-score 모델은 1980년대까지 부도예측연구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오낙교·박원구, 2015).

1980년대 이후, 이산 확률 분포(discrete probability)를 이용한 로짓(Logit), 프로빗(Probit)의 기법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Ohlson(1980)은 도산한 105개 회사를 대상으로 9개의 변수에 의한 로짓모형을 처음으로 부도 예측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산 1년 전 96%, 2년 전 96%, 3년 전 93%의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Zmijewski(1984)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40개의 도산기업과 800개의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hlson(1980)과 Zmijewski(1984)의 연구는 Begley, Ming and Watts(1996)와 Grice and Dugan(2001)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반

복연구(replication study)가 되었고, 통계에 기반한 주요 부도예측모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90년대부터 많은 제약을 받는 통계적 모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기법을 도산예측 모형에 도입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인간의 인지기능을 모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Anandarajan, Srinivasan and Anandarajan, 2004). Odom and Sharda(1990)는 1972년부터 1982년 사이의 65개 도산기업을 대상으로 판별분석과 인공신경망 분석을 실시하여, 인공신경망의 예측력이 보다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Tam and Kiang(1992)는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도산한 59개 은행과 59개 정상 은행을 대상으로 여러 예측 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공신경망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재무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부도예측 모형들은 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확률적으로 알아내는 강점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표본 외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도산 시점의 정보를 주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김경숙·도영호·장영민, 2014).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반대로 부도 예측에 활용하는 연구가 전개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Lane, Looney and Wansley(1986)이 Cox 비례위험모형을 처음으로 부도 예측에 사용하여, 1979년부터 1983년까지 334개의 성공한 은행과, 130개의 부도 은행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Luoma and Laitinen(1991)은 36개의 성공한 회사와 36개의 부도 기업을 분석하면서 다른 예측 기법 대비 Cox 비례위험모형의 장

단점을 보고하였다. 반면, Shumway(2001)은 준모수적(semi-parametric) 모형인 Cox 비례위험모형이 아닌, 모수적 생존분석인 가속수명시간모형(Accelerated Failure Time, AFT)를 이용하여 31년에 걸친 2000개 회사들의 재무 비율 등을 분석하였고, Altman(1968) 등의 기존 부도확률모형과 비교하여 생존분석의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3.2 실패 전·후 감정

감정(emotion)은 기업가정신에 선행하거나, 동시 발생하거나, 또는 결과물로서 나타난다(Cardon, Foo, Shepherd and Wiklund, 2012). 따라서 사업실패와 관련된 기업가의 감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1) 다가올 실패에 대한 두려움(fear of failure), (2) 실패를 겪는 과정에서의 비통함(Grief), (3) 실패 후 사건이 주는 의미와 대처를 놓고 고민하는 행동, 이른바 센스메이킹(Sensemak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3.2.1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

실패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위험회피(Wagner and Stenberg 2004), 또는 손실회피(Morgan and Sisak, 2016) 성향에 기인한다. 이로 말미암아, 실패의 두려움이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강력한 심리적 장벽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Cacciotti and Hayton, 2015). 대표적으로 Arenius and Minniti(2005)는 2002 GEM 데이터를 바탕으로 28개 국가에 걸친 51,7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패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예비 창업자가 될 확률이 6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패의 두려움과 신규 진입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Morgan and Sisak, 2016; Shinnar, Giacomini and Janssen, 2012; Wennberg, Pathak and Autio, 2013).

실패의 두려움은 신규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폐업 이후 재창업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Hessels, Grilo, Thurik and van der Zwan(2011)은 24개국을 대상으로 2004, 2005, 2006년 GEM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패의 두려움이 낮은 사람일수록 폐업 이후 재창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듯 실패의 두려움이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부정적인 원인으로, 학자들은 실패의 두려움이 기업가의 ‘기회 평가 및 추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Mitchell and Shepherd(2010)에 따르면, 127명의 창업기업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 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의 모습(image of an opportunity)’이 실패의 두려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i(2011) 또한 실험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이 낮은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기회’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3.2.2 비통함(Grief)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인 비통함(Grief)이 사업의 실패에서도 나타난다는 전제로 Shepherd(2003)의 AMR 논문에서 이 분야 연구가 시작되었다. Shepherd(2003)에 따르면, 비통함은 사업실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Shepherd and Kuratko, 2009). 그에 따르면, 비통함을 잘 극복하는 것이 실패 후 학습의 핵심이므로, 극복 기제(Mechanism)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Shepherd(2009)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일컫는, 감정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높을수록, 비통함의 극복이 빠를 것으로 주장하였고, Shepherd, Covin and Kuratko(2009)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회복이 비통함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주요 변수로 파악했다. Jenkins, Wiklund and Brundin(2014)은 스웨덴의 도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 실패 시점에서 타 분야 근로 등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있었을 경우는 실패로부터 생기는 비통함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관찰되지 않음을 보였다. Shepherd, Wiklund and Haynie(2009)는 사업 실패 전, 다가올 비통함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anticipated grief)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2.3 센스메이킹(Sensemaking)

센스메이킹은 비교적 최근이야 사업실패 분야에 도입되었다(Wolfe and Shepherd, 2015). 이론상 센스메이킹은 환경이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과정이다(Weick, 1995). 사업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센스메이킹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공유된 의미(Shared meanings)와 감정(emotions)이다(Maitlis and Sonenshein, 2010). 첫 번째, 센스메이킹은 사회적인 행

위이지 개인의 인지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대한 공유된 의미가 센스메이킹의 선행 요인이다(Maitlis and Sonenshein, 2010). 두 번째, 사업실패라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촉발된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emotions)은 센스메이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Maitlis and Sonenshein, 2010). 따라서 센스메이킹 관점을 도입한 실패 관련 연구는 1) 조직 및 사회 구성원이 실패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와 2) 실패로부터 나타난 부정적 감정의 역할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Shepherd et al.(2011)은 독일의 12개 연구소의 257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실패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부정적인 감정이 중요하며, 대처지향(coping orientation)이 높은 조직구성원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실패로부터 학습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다. Cardon et al.(2011)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389개의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서 기업의 실패를 ‘불운(misfortune)’, 또는 ‘실수(mistake)’로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을 밝혔다.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센스메이킹 연구로, Byrne and Shepherd(2015)는 8명의 실패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패로부터 나타난 부정적/긍정적 내용을 비교하여, 각각 어떻게 실패를 지각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Heinze(2013)는 스코틀랜드의 실패한 6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석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실패

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과도기 상태거나 장기적인 상태일수 있는데, 장기적인 상태가 될 때 센스메이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3.3 감정 이외 실패 비용

사업실패 후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이외에도 사업실패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Cope, 2011; Ucbasaran et al., 2013). 감정 이외의 실패 비용에 관한 연구는 따라서 크게 (1) 재무적 비용(financial costs), (2)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3) 제도적 장치(institutions)로 이루어져 있다.

3.3.1 재무적 비용(financial costs)

사업의 실패는 재산상의 손해 등 재무적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를 재무적 비용이라고 한다. 실패 후 재무적 비용에 관한 연구는 재무 비용을 낮추는데 관여하는 개인적 행위(또는 지혜)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상 등을 다루고 있다(Ucbasaran et al., 2013). 예를 들어, McGrath(1999)는 실물옵션(real option) 기법을 제시하여, 실패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에 지출을 제한하면서 상방가능성(upside potential)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하게 Dew, Sarasathy, Read and Wiltbank(2009)는 재무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내할만한 손해(Affordable loss)’ 원리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대로 실증연구에서는 재무비용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Shepherd et al.(2009)는 실패한 기업들

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더 큰 재무적 비용에 직면하게 되는 이른바 ‘몰입상승의 함정(escalation of commitment)’에 빠지는 분석하였다.

3.3.2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실패한 사업가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개인적, 전문적 관계를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자산을 잃게 된다(Harris and Sutton, 1986; Sutton and Callahan, 1987). 이를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는 (1) 실패 후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2) 문화적 ‘부끄러움(Shame)’ 과 ‘부러움(envy)’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낙인(stigma)’이란 특정 개인을 타인과 구별하고, 평가 절하하여, 사회적 지위의 손실과 구조적인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Goffman, 1963; Cope, 2011). 주된 연구는, 각 사회마다 낙인의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거나(Efrat, 2006)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Simmons, Wiklund and Levie, 2014; Singh, Corner and Pavlovich, 2015)과 극복 방법(Sutton and Callahan, 1987)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사업실패는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쳐 실패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Shame)을 느끼게 한다. 관련 연구는 부끄러움으로 인한 기업가정신의 쇠퇴(Begley and Tan, 2001) 또는 파산신청의 지연(Ekanem, 2013) 등이 있다.

3.3.3 제도적 장치(Institutions)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패로부터 유발되는 재무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

다(Armour and Cumming, 2008; Fan and White, 2003; Lee, Yamakawa, Peng and Barney, 2011). 제도적 장치의 대부분의 연구주제는 파산법(Bankruptcy law)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흐름은 기업가 친화적(Entrepreneur-friendly) 파산법은 기업가정신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rmour and Cumming, 2008; Fan and White, 2003; Lee et al., 2011; Rohlin and Ross, 2016). 예를 들어, Estrin, Mickiewicz and Rebmann(2017)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GEM 데이터를 이용하여, 15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개인 파산법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다. Fan and White(2003)는 개인이 파산할 경우에도 살던 집에 계속 살게 해주는 권리인 ‘주택차압면제(Homestead exemption)’이 창업을 35%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파산법은 오히려 은행 및 투자자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Lee and Yamakawa, 2012). 예를 들어, Garrett and Wall(2006)은 미국 각 주의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주택차압면제 자격이 주어질 경우,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쇠퇴함을 보여주었다.

3.4 실패 원인

Mellahi and Wikinson(2004)에 따르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크게 두 흐름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영의 미숙이나 자금의 부족 등 기업 내부의 원인을 찾는 연구다(Ooghe and DePrijcker, 2008).

이 흐름의 학자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영진이라고 보고 있으며, 많은 실패는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 한다(Finkelstein, 2005).

반면, 기업의 실패는 높은 이자율과 같은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Peterson, Kozmetsky and Ridgway, 1983; Hall and Young, 1991).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의 변화,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의 증가 등을 꼽는다(Baum and Singh, 1994). 또한, 기술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및 인구조의 변화도 기업 실패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Anderson and Tushman, 2001).

최근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실패 원인을 연구하는 논문들은 Heider(1958)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이용해 향후 결과를 설명한다. 귀인(歸因)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한다는 것으로 내적 요인에 의한 내부귀인(internal attributions)과 환경적인 힘에 의한 외부귀인(external attributions)으로 분류하였다. 보통 내부귀인의 경우,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통제할 수 있는 반면에 외부귀인은 외부 환경에 의한 것으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Rotter, 1966; Busenitz and Barney, 1997; Eggers and Song, 2015).

귀인 분석은 창업가가 실패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내부와 외부로 나눠 명확하게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학습과정까지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실패 연구에서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Shepherd, 2003; Shepherd and Cardon, 2009). 귀인은 말 그대로 실패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대개 설명변수로 쓰이고 있으며 결과변수인 실패학습, 재창

업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가 되어왔다(Yamakawa and Cardon, 2015; Yamakawa, Peng and Deeds, 2015; Eggers and Song, 2015; Ucbasaran et al., 2013; Ucbasaran, Westhead and Wright, 2011).

뿐만 아니라, 귀인 이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 연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Zacharakis, Meyer and DeCastro(1999)는 창업가와 그 창업가에 투자한 VC를 대상으로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창업가는 내적요인이 큰 반면 VC는 외적요인을 더 큰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을 밝혀냈다. Rogoff, Lee and Suh(2004)는 실패 경험에 의해 생긴 부정적 감정과 무너진 자존감(Self-esteem)을 보호하기 위해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큼을 밝혀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귀인에 대해 행위자-관찰자 편향(actor-observer bias)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나아가 Sedikides, Campbell, Reeder and Elliot(1998)은 성공을 경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편향적 귀인(Self-serving bias)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다.

3.5 실패 후 재창업 결정요인과 성공요인

실패 연구 중 가장 연구가 부족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실패 후 재창업이다(Stam, Audretsch and Meijaard, 2009). 사실, 사업이 실패 한 후 다시 창업을 시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측정할 연구조차 드물다. 다만, 실패 후 재창업도 연쇄 창업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연쇄 창업 비율이 약 25% 내외(Hyytinen and Ilmakunnas,

2007)이므로 그보다는 적은 비중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Amaral, Baptista and Lima, 2011). 비록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긴 하지만, 실패 후 재창업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실패 기업인이 다시 창업을 가능케 하는 동기 또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실패 후 재창업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구이다. 두 번째는 “이미 재창업한 기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이다. 바로 성공요인 탐색에 관한 것이다.

먼저, 실패 후 재창업 동기 및 결정요인에 관해서 성별(Simmons, Wiklund, Levie, Bradley and Sunny, 2019), 나이(Baù, Sieger, Eddleston and Chiricot, 2017), 그리고 과거 창업에서 축적된 경험자본(Guerrero and Peña-Legazkue, 2019; Koçak, Morris, Buttar and Cifici, 2010)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Simmons et al.(2019)는 성별이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GEM 데이터를 통해 8,171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실패 후 재창업 확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Baù et al.(2017)는 성별 이외에도 나이와 현재 어느 커리어 단계에 있는지가 실패 후 재창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스웨덴의 4,761명의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자의 경우 커리어 초기 또는 후기 단계에서는 나이가 재창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중간 커리어 단계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과정에서의 경험자본(Experiential capital)이 재창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errero

and Peña-Legazkue, 2019; Koçak et al., 2010). GEM 데이터를 통해 599명을 분석한 결과, 과거 창업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예, 신제품 출시 등)이 재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실패 후 재창업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인 분석(Danneels and Vestal, 2020), 실패 원인의 내부화(Yamakawa et al., 2015), 그리고 기업가적 기민함(Boso, Adeleye, Donbesuur and Gyensare, 2019)이 제시되었다. Danneels and Vestal (2020)은 실패의 원인 분석이 재기의 성공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106개 미국 제조업체를 2007년과 2009년 추적 연구한 결과,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을 경우, 차후 혁신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Yamakawa et al.(2015)는 실패 원인의 분석 자체보다는 원인을 분석할 때 내부에서 이유를 찾으려는 “성향”이 재창업의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실패 후 재창업을 시도한 203명의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패의 원인이 “예측의 실패”, “경영의 부족”, “자금 실수”와 같은 내부의 탓이라는 성향을 보인 재기 기업가의 성과가 높았음을 보였다.

Boso et al.(2019)는 기업가적 기민함(alertness)이 바탕이 되어야 재창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들은 나이저리아의 204개 스타트업 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적 기민함이 있을 경우에 재창업이 성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IV. 국내연구현황

본 연구는 학회의 연구 활동을 평가해 보는 목적을 가지는 바, 국내 연구는 먼저, ‘중소기업연구’ 지에 발표된 학술논문을 검색하였다. 구체적으로 79년 창간호부터, 2019년 12월 호 (통권 41권 4호)에 실린 총 1,060편의 연구 중, ‘실패’, ‘창업 실패’, ‘재창업’ 및 ‘재도전’의 키워드로 최종 16개 논문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연구 외의 학술지에 나타난 사업실패 연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 대표 학술지인 ‘경영학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 벤처경영연구)’,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위와 동일한 키워드 검색 후 논문을 찾고 나머지 기타 학술지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토 후, 최종 24편 주요 논문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에서 출간된 16개의 논문은 Watson and Everett(1996)의 사업실패 개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의한 장수덕(2003)의 연구에 따라 1) 사업의 중단, 2) 법적 파산, 3) 사업의 처분, 4) 지속적인 사업의 실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1 실패 예측

4.1.1 중소기업연구 내

회계학, 재무학, 경제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재무정보를 통해 기업 내 경제 이슈 즉, 기업도산, 채권등급평가, 기업합병과 같은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재무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후속 경제 사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윤주석(1994)은 Beaver(1966)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현금흐름정보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측력을 주장한다. 따라서 윤주석(1994)의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현금흐름정보와 운전자본흐름정보가 전통적인 재무정보보다 도산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판별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현금흐름비율정보를 전통적 재무비율정보를 통합시킨 모형이 도산 1년 전과 2년 전 판별력에 있어 각각 정확도 96.61%과 95%로 가장 뛰어나다.

반면 김석웅·김재웅(1998)은 현금흐름 분석이 아닌 재무제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76개 비상장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92~1994년의 3개년 재무제표를 수집해 Altman(1968)이 개발한 다변량판별분석에 의한 도산예측모형을 정립하고 그 예측력을 검증했다. 평가결과, 도산 1년 전 모형과 2년 전 모형 모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도산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 사전에 감지가 가능함을 밝혀냈다.

이광로·문성주(2002)는 코스닥 내 벤처기업 1,747개를 대상으로 McQuown(1993)의 도산모형을 이용하여 예상 도산확률을 산출했다. 연구결과, 1998년 말~1999년 초 이후에는 도산위험이 낮으나 2000년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에 의한 자금조달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도산위험이 낮았으므로 지원정책을 통해 벤처기업의 도산위험을 줄이는 정부의 역할을 시사한다.

허영빈·심상규(2002)는 중소기업의 지식자산을 측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결과, 자산규모는 21%, 자본은 58%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224%에서 132%로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식자원이 기업부실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적 재무지표보다 유의성이 높았다. 즉, 중소기업 역시 지식자원이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며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또한 중소기업 평가 시 지식자산을 고려한 재무제표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숙(2003)은 Jarro and Deventer (1999)가 개발한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외환 위기 때 환율 변동이 중소기업의 도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당시 도산 현상은 대기업의 경우 IMF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오버슈팅현상(환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난 반면, 소형기업의 경우 도산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도 도산확률이 대기업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외환관리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윤형호 · 이의영(2008)은 준모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토지가격의 변화에 따른 휘발유가격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유소 폐업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가격이 낮을 때 휘발유가격은 완만히 증가한 반면 토지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 휘발유가격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값비싼 입지에 있던 주유소가 토지비용에 대한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동철(2013)은 2000~2011년까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모형을 정립하고 그 예측력을 검증했다. 먼저, 7단계의 추정절차를 거쳐 안정성(15점), 수익성(15점), 유동성(10점), 부채상환능력(15점)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등급 평점을 산출하

여 종합평가모형을 산정했다. 이후 재무비율변수 135개를 이용해 켄달 상관분석(Kendall's tau)과 일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력을 평가한 결과, 재무비율변수로만 이뤄진 모형보다 거시경제변수가 추가된 부도예측모형의 예측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정기업이 거시경제 충격에 위험이 노출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모형을 제시했다.

이근우 · 강만수 · 박상규(2015)는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받은 34,465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기업의 생존율은 36개월까지 원만한 생존 분포를 이루다 급격히 하락했으며 지점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대표성별, 연대보증인 유무별, 특례보증 여부별, 재산 유무별, 부분보증유형별, 보증금액유형별, 대표자 연령별로 그 추세는 약간씩 다르나 전반적으로 전체기업의 생존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도영호 · 장영민 · 김경숙 · 김석진(2016)은 1991~2013년 사이 실질경제성장률이 중소기업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VAR 모형을 통해 17개 산업별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실질경제성장률의 둔화 충격이 중소기업의 부도율을 증가시켰다. 90년대 초반, 반응이 가장 큰 산업은 건축자재 도매업이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목재, 귀금속, 가구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도에 있어 외부 환경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설정하는데 있어 산업별로 고려해야함을 말해준다.

곽동철 · 주영혁 · 조봉현(2016)은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제언을 위해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H)을 통해서 청년창업의 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일반창업과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청년창업이 일반창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았으며 청년 창업의 경우, 20대가 30대보다 위험률이 낮은 반면, 종업원 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률이 감소했다. 또한 납입 자본금, 매출액은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서울에서 창업이 이뤄지는 경우 위험률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도 위험률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소매,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금융, 보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은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4.1.2 중소기업연구 의

오낙교 · 박원구(2015)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 100개 신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별분석(MDA), 로짓분석(LA), 인공지능 분석(ANN)을 통해 13개 재무비율 중 유보액대 총자산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보액대 납입자본비율, 총자산증가율을 중요 재무비율로 선정했다. 선정된 재무비율을 이용해 부실 예측모형을 검증한 결과, 3개 모형 모두 예측 능력이 검증되었다.

서근하 · 이유태 · 노화봉 · 유점석(2014)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도출 모형은 진입률, 경제성장율, 실업률을 제시하여 각각 폐업률에 양(+), 음(-),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성 · 이상운 · 최보승(2009)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도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 전체 업종을 5개(IT, 건설, 도소매, 서비스, 제조)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사내 유보금으로 부채 상환 후 유형

자산의 잔여부채 Coverage로서 자금조달의 여력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와 금융비용부담률 변수에 해당하는 산업은 IT,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이 포함되었고 현금 비율은 IT, 건설, 제조, 서비스업에,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변수는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업에서 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되었다.

이영찬(2010)은 기술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평가 요인을 파악하고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H)과 가속화 고장시간 모형(AFT)을 이용해 부도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Cox PH 모형과 AFT 모형 모두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수준, 경영주의 기술지식 수준, 기술의 완성도, 인지도, 시장점유율, 생산시설확보용이성, 자본조달능력, 투자이익률이 생존율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박진경 · 오광호 · 김민수(2012) 또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생존율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이 생존율일 가장 낮았다. 특히 건설업은 차입금의 존도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했으며 중공업은 결합지표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이장우 · 권세왕(2011)은 선형로지스틱스 회귀모형 내에 이차형식(quadratic features)과 커널형식(kernel features)을 추가하여 MEU(Maximum Expected Utility) 모형을 중소기업 부도예측에 적용하였다. 재무비율은 여러 단일변량분석 과정을 거쳐 업종별로 10~15개 재무비율을 선정하고 다변량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업종별 5~9

개 내외의 변수를 선정했다. 검정결과, 전체산업 및 모든 업종에서 MEU 완전모형이 선형, 이차, 커널형식을 분리한 모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민재형·정철우(2008)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산예측을 위한 새로운 이진 분류기업을 제안하고 대안 기법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먼저 27개 재무비율 변수에서 여러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9개(총 자본투자효율, 총자산증가율, 유동부채대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총자산회전율, 감가상각비, 순금융비용, 손익분기점율, 인건비)를 최종 선정하였고 도산과 비도산기업의 대표기업을 늘려가면서 모형별 예측 정확도를 판별하였다. 기법별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기존에 예측성도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인공신경망보다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부실로 판정된 기업의 부실 원인까지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2 실패 전·후 감정

해외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에서는 실패 전후 감정에 관한 연구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논의가 되고 있으며 비통합과 센스메이킹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4.2.1 중소기업연구 내

김영희·양동우(2019)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두려움을 재무적 손실, 심리적 손실, 경력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결과,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양(+), 음(-)의 값이 모두 나타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4.2.2 중소기업연구 외

하규수(2012)는 617명을 대상으로 사업 태도,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의욕을 조사한 결과, 사업운명을 해본 경우, 사업 실패를 해본 경우,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부모, 동료, 친구, 사회 구성원, 우리 사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교육이 이러한 효과를 오히려 강화시켜 창업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Von Graevenitz, Harhoff and Weber(2010), Fayolle, Gailly and Lassas Clerc, (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예비창업자가 창업교육이라는 사전학습을 통해 창업의 위험과 어려움을 더 크게 인지하므로 실전 위주의 창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재형(2018)은 기업가정신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관계

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확장한 김태경(201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정신 교육과 창업의도를 조사한 결과, 오히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4.3 감정 이외 실패 비용

사업 실패로 인한 재무적 비용 및 사회적 비용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에서 4편, 중소기업연구 이외의 학술지에서 2편을 찾을 수 있었다.

4.3.1 중소기업연구 내

중소기업연구에서 재무 및 비재무 비용을 직접 다루고 있는 논문은 2편이었으며, 실패와 관련된 공식 제도를 분석한 논문이 2편이었다. 첫 번째, 이주일·김상준(2018)과 하규수·한정화(2010)는 실패 비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주일·김상준(2018)은 창업 후 재취업을 ‘사회적 낙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업 후 재취업시, 기존 창업에 들어간 투자금이를 경우,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하규수·한정화(2010)는 실패경험이 있는 창업자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치르게 될 재무적, 사회적 비용을 직접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비용과 비재무적 비용이 사업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 용세중(1994)과 한정화(2017)는

실패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식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용세중(1994)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제도의 의의를 탐색했다. 한정화(2017)는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핵심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에게 부과된 실패 비용’을 완화하여 제도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3.2 중소기업연구 외

중소기업연구 외 학술지에서는 실패 비용을 직접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공식적인 제도로서, 재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김종호, 2015)와 국제비교 연구(김형호·윤현덕, 2015)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종호(2015)는 사업 실패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재창업이 활성화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복선형 사회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패비용(costs of failure)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경감시켜야 하며, 해결방안으로 (1) 파산예방, (2)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3)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부실정리를 제안하였다.

김형호·윤현덕(2015)는 미국, EU, 그리고 일본의 재창업 정책과 비교하여 국내의 재창업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창업자 친화적인 재창업 제도가 실패 비용을 완화시키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4.4 실패 원인

4.4.1 중소기업연구 내

이장우·이성훈(2009)은 2,052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생존기업과 실패기업 간 특

성과 성장단계별 특성 차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 실패기업은 대체로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기술차별화 전략이 부재하며 외부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창업자의 위험감수성향과 자금조달능력이 실패에 영향을 미쳤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협력 관계, 연구개발이 중요해지며 안정기 이후에는 창업자의 성취동기와 명확한 미래비전 제시가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중소기업연구 외

장수덕(2003)은 87개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기업가의 전공, 제품과의 관련성, 기비전의 명확성과 차별성, 조직구조, 보상특성, 조직문화, 원가우위 전략, 마케팅 차별화, 기술혁신 차별화를 벤처기업의 성패를 판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원가우위 전략, 마케팅 차별화, 전공과 제품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변수였으며 기업가가 지닌 지식을 잘 활용하고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차별화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장우·이성훈(2004)은 벤처기업협회(KOVA)에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997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패기업과 생존기업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창업자 특성, 경쟁전략, 기업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자기자금비중, 시장세분화, 마케팅 차별화 전략이 차별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고성과 벤처기업의 성공요인과 실패기업의 실패요인

이 일치되지 않음을 발견해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이 구별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성민·조성도·김경은·문연희(2008)는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인 CIT방법과 통시적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CEO중심의 경영과 마케팅 전략의 부재가 중요한 실패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수덕·Christopher Scotte·이상설(2008)은 벤처기업 실패시점의 연령과 기업수준의 자원 및 능력, 환경의 변화 등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호주의 실패 벤처기업과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초기 벤처기업의 실패는 경영지식과 자금조달능력의 부족이 주요원인이었으며 오랜 벤처기업의 경우, 경쟁적으로 바뀐 산업 환경이 원인이었다.

신중경·하규수(2013)는 20개 창업기업의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ERIS모형을 활용하여 창업실패의 원인을 경영능력 부족, 연구개발 및 제품화 실패, 판로확보 어려움으로 꼽았고 실패 과정을 사업준비 부족형, 자원획득 실패형, 전략 부재형, 마케팅 실패형으로 분류하였다.

권기환·최종인(2015)은 대덕연구단지 내 10년간 활동한 중소벤처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패요인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기업가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 경영에 대한 지식 부족, 업무 전문성 부족, 제품의 독특성 상실, 제품의 확장성 부족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나타났다.

장수덕(2010)은 1997년, 2000년 두 번에 걸쳐 모두 응답한 76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10년 뒤 2008년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생존과 실패를 재조사하여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존한 기업은

35개, 실패한 기업은 41개로 변화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술이나 원가에 대한 전략은 약하고 마케팅에 치중하다가 이후 기술과 원가위주의 전략으로 변화한 기업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쟁 심화와 같은 환경 변화는 벤처기업의 생존에 불리한 영향이 관찰되어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성장단계에 따라 공식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분권화가 많이 진행된 기업이 실패 확률이 높았는데 특히 초기에 비해 전략의 변화에 있어 어중간한 변화를 구사하는 기업들이 분권화를 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더 큼을 발견했다.

4.5 실패 후 재창업 결정요인과 성공요인

4.5.1 중소기업연구 내

중소기업연구 내에서는 재창업 결정요인과 재창업의 성공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게재된 바가 없다.

4.5.2 중소기업연구 외

중소기업연구 외 학술지에서는 실패 후 재창업의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 2편, 재창업 시 산업선택의 결정요인 1편, 그리고 실패 후 재창업 기업의 성공요인을 다룬 연구 1편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실패 후 재창업을 일으키는 동기에 대해서는 학습효과(김나미·이종선·김동수, 2020)와 자금조달 기회(허제강·이상진·서철승, 2020)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김나미 외(2020)는 실패를 경험한 93명의 기업가를 조사한 결과, 실패 경험과 재창업 교육의 학습효과가 큰 기업가가 재

창업 확률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학습효과는 기업가가 성취욕과 같은 내적 동기가 강해야 인내심을 가지고 재창업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외적 동기에 의해 재창업에 임할 경우 당장의 결과물에 대한 희생을 참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와 재교육으로부터의 학습효과를 감소시켜 재창업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다.

허제강 외(2020)는 기회의 여부가 실패 후 재창업을 고취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재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에 참가한 창업실패자 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자금지원의 존재 자체가 재창업 의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기회로 여겨 기업가정신이 고양되어 재창업 의지가 높아지는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종선·김나미(2019)는 재창업 시 산업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통해 99명의 재창업 준비 기업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창업실패에 대한 내부 귀인 지향성이 높을수록 기존 산업의 틀 안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추후 발생할 일들에 대해 통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추가로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내부귀인의 동일산업 재창업 가능성에 대한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실패 후 재창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김인수·이택구(2018)는 재창업 동기와 정부지원, 사업경험, 재창업 교육이 재창업 기업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보임을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신용문제 유무에 따라 재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신용 문제가 없는 경우, 재창업 동기와 실패 경험이 유의미했던 반면, 신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 사업 경험과 재창업 교육 참여가 유의미했으므로 재창업 정책 개발을 하는데 있어 신용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사업 실패에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해 먼저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주제에 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이에 따른 국내 동향을 탐색해보았다. 실패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사례의 접근이 어려워 관련 연구가 기업가정신분야에서도 발전이 더딘 분야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McGrath, 1999; Shepherd et al., 2009; 김인수 · 이택구, 2018). 특히 해외에 비해 국내 연구는 양적·질적 발전이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창업을 통해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국내외 흐름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재창업 관련 연구가 학계에 이론적인 기여나 창업 교육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이 명확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업 실패에 관한 국내의 연구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한 본 연구가 창업 재도전에 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재창업 분야에서 해외 상황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개발되어 더욱 활발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창업 실패 확률을 줄이는데 기여해 저성장 시대에

국가 혁신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업 실패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해외 연구 동향과의 간극을 좁히고 문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향후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패 횟수와 같은 실패 경험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패 경험 자체가 재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 경험을 통한 실패 학습이 이뤄지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폐업 후 재창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가령, 소요 기간을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재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나 반대로 사업과 사업아이템에는 시기(timing)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관찰을 실패 후 재창업 연구에서 기대하는 바이다. 실패 경험이 자산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내적 및 외적 귀인 지향성 이외에 성공 재창업 기업인이 지닌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기업가가 사업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해 다음 사업을 도모하는 기민함이 재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실패 경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폐업 과정 및 사후 학습에서 관찰되는 요인들이 재창업의 메커니즘이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0년 06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07월 31일

참고문헌

- 곽동철(2013). “중소기업의 종합평가모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4호, pp. 1-23.
- 곽동철 · 주영혁 · 조봉현(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 요인 고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4호, pp. 77-94.
- 권기환 · 최종인(2015). “기술벤처의 실패 요인 분석: 연구소 창업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4호, pp. 27-37.
- 김경숙 · 장영민 · 도영호(2014). “신생중소기업의 헤저드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생존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43권, 제1호, pp. 121-144.
- 김나미 · 이종선 · 김동수(2020). “기업가의 창업 실패 경험과 재교육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창업 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2호, pp. 33-45.
- 김석웅 · 김재웅(1998). “중소기업의 도산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1호, pp. 217-244.
- 김수진 · 한정화 · 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3호, pp. 49-61.
- 김영숙(2003). “외환 위기에서 환율 변동이 중소기업의 도산확률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4호, pp. 133-154.
- 김영희 · 양동우(2019).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창업실패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41권, 제4호, pp. 65-86.
- 김인수 · 이택구(2018). “신용문제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2호, pp. 15-26.
- 김종호. (2015). “사업실패자의 패자부활전을 위한 재기지원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복선형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법학연구』, 제58권, pp. 161-204.
- 김재형(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구: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4호, pp. 73-82.
- 김태경(2019).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2호, pp. 95-104.
- 김형호 · 윤현덕(2015).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6호, pp. 235-252.
- 도영호 · 장영민 · 김경숙 · 김석진(2016). “실질경제성장률이 중소기업 산업별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3호, pp. 25-48.
- 민재형 · 정철우(2008). “도산예측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 이진분류기법의 개발,”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3권, 제2호, pp. 1-16.
- 박유성 · 이상윤 · 최보승(2009). “중소기업

- 을 위한 효율적인 부도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1권, 제3호, pp. 1363-1375.
- 박진경 · 오광호 · 김민수(2012). “콕스 비레위험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제23권, 제2호, pp. 257-269.
- 서근하 · 이유태 · 노화봉 · 유점석(2014).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실태가 신규사업 진입율과 폐업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 벤처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pp. 13-32.
- 신중경 · 하규수(2013). “창업실패 요인 분류 및 실패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5호, pp. 257-265.
- 오낙교 · 박원구(2015). “신재생에너지 신생 중소기업 부실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 벤처경영연구)』, 제18권, 제3호, pp. 1-21.
- 용세중(1994). “중소기업 지원정책 체계와 도산방지 공제제도,” 『중소기업연구』, 제16권, 제2호, pp. 151-171.
- 윤주석(1994). “기업도산예측을 통한 현금흐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6권, 제1호, pp.115-146.
- 윤형호 · 이의영(2008). “주유소 휘발유가격 결정요인과 최근 폐쇄 주유소의 철수원인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0권, 제2호, pp. 61-78.
- 이광로 · 문성주(2002).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와 도산위험,”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3호, pp. 57-80.
- 이근우 · 강만수 · 박상규(2015).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7권, 제1호, pp. 57-75.
- 이영찬(2010). “생존분석을 이용한 기술보증기업의 부실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제39권, 제3호, pp. 1-24.
- 이장우 · 권세왕(2011). “Maximum Expected Utility를 이용한 중소기업 부도예측모형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40권, 제5호, pp. 775-799.
- 이장우 · 이성훈(2004). “벤처기업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제12권, 특별호, pp. 229-274.
- 이장우 · 이성훈(2009). “벤처기업의 실패 원인: 성장단계별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1권, 제3호, pp. 1-17.
- 이종선 · 김나미(2019). “창업가의 실패 귀인 지향성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3호, pp. 13-26.
- 이주일 · 김상준(2018). “창업비용이 창업 후 재취업(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적 접근,” 『중소기업연구』, 제40권, 제4호, pp. 75-94.
- 장수덕(2003).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차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 벤처경영연구)』, 제6권, 제2호, pp. 101-125.
- 장수덕(2010). “벤처기업 실패의 동태적 과정: 실패의 유형, 과정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한 종단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1호, pp. 140-159.

- 장수덕 · Christopher Scotte · 이상철(2008). “벤처기업의 실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연령의존관점과 자원기반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 벤처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pp. 41-63.
- 정성민 · 조성도 · 김경은 · 문연희(2008). “국내 지방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 벤처경영연구)』, 제11권, 제4호, pp. 91-113.
- 중소기업청(2017), “채도전 지원기업 성과 조사 보고서”
- 통계청(2017),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 통계”
-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5호, pp. 59-74.
- 하규수 · 한정화(2010). “기업가의 사업실패스트레스와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1호, pp. 21-41.
- 한국무역협회(2015), “한 · 중 · 일 청년창업, 중국 열풍, 일본 미풍, 한국은...,” Trade Brief, No.57
- 한정화(2017). “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9권, 제4호, pp. 159-179.
- 허영빈 · 심상규(2002). “중소기업 지식자산정보의 부실예측 유용성,”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4호, pp. 109-135.
- 허제강 · 이상진 · 서철승(2020). “정부자금 지원제도가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실패자의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공학회지』, 제25권, 제1호, pp. 43-59.
- Altman, E. I.(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The Journal of Finance*, Vol.23, No.4, pp. 589-609.
- Amaral, A. M., R. Baptista, and F. Lima(2011), “Serial entrepreneurship: impact of human capital on time to re-entry,”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7, No.4, pp. 1-21.
- Anandarajan, A., C. A. Srinivasan, and M. Anandarajan(2004), Historical overview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In *Business intelligence techniques* (pp. 1-19).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nderson, P. and M. L. Tushman(2001),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industry exit: The effects of uncertainty, munificence and complexit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10, No.3, pp. 675-711.
- Arenius, P. and M. Minniti(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4, No.3, pp. 233-247.
- Armour, J. and D. Cumming(2008), “Bankruptcy law and entrepreneurship,”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Vol.10, No.2, pp. 303-350.
- Balcaen, S. and H. Ooghe(2006), “35 years of studies on business failure: an overview of the classic statistical methodologies and their related problems,”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Vol.38, No.1, pp. 63-93.
- Baù, M., P. Sieger, K. A. Eddleston, and F. Chirico(2017), “Fail but Try Again? The

- Effects of Age, Gender, and Multiple - Owner Experience on Failed Entrepreneurs' Reentr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41, No.6, pp. 909-941.
- Baum, J. A. and J. V. Singh(1994), "Organizational niches and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founding," *Organization Science*, Vol.5, No.4, pp. 483-501.
- Beaver, W. H.(1966),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fail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 pp. 71-111.
- Begley, J., J. Ming, and S. Watts(1996), "Bankruptcy classification errors in the 1980s: An empirical analysis of Altman's and Ohlson's model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1, No.4, pp. 267-284.
- Begley, T. M., and Tan, W. L. (2001),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A comparison between East Asian and Anglo-Saxon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32, No.3, pp. 537-553.
- Boso, N., I. Adeleye, F. Donbesuur, and M. Gyensare(2019), "Do entrepreneurs always benefit from business fail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98, pp. 370-379.
- Busenitz, L. W. and J. B. Barney(1997),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 large organizations: Biases and heuristic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2, No.1, pp. 9-30.
- Byrne, O. and D. A. Shepherd(2015),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 Entrepreneurial narratives of emotion, cognition, and making sense of business fail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9, No.2, pp. 375-405.
- Cacciotti, G. and J. C. Hayton(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Vol.17, No.2, pp. 165-190.
- Cardon, M. S., M. D. Foo, D. Shepherd, and J. Wiklund(2012), "Exploring the heart: Entrepreneurial emotion is a hot topic,"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6, No.1, pp. 1-10.
- Cardon, M. S., C. E. Stevens, and D. R. Potter(2011), "Misfortunes or mistakes?: Cultural sensemaking of entrepreneurial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6, No.1, pp. 79-92.
- Cave, F. D., S. A. Eccles, and M. Rundle(2001), "An exploration of attitudes to entrepreneurial failure: a learning experience or an indelible stigma," *In: Babson College-Kauffman Founda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proceedings*, May 2001. Jonkoping, Sweden.
- Chen, K. H. and T. A. Shimerda(1981), "An empirical analysis of useful financial ratios," *Financial Management*, Vol.10, No.1, pp. 51-60.
- Cope, J.(2011),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6, No.6, pp. 604-623.
- Danneels, E. and A. Vestal(2020), "Normalizing

- vs. analyzing: Drawing the lessons from failure to enhance firm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35, No.1, pp. 105903.
- Deakin, E. B.(1972), “A discriminant analysis of predictors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pp. 167-179.
- Dew, N., S. Sarasathy, S. Read, and R. Wiltbank(2009), “Affordable loss: Behavioral economic aspects of the plunge decision,”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Vol.3, No.2, pp. 105-126.
- Efrat, R.(2006), “The evolution of bankruptcy stigma,”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Vol.7, pp. 365-393.
- Eggers, J. P. and L. Song(2015), “Dealing with failure: Serial entrepreneurs and the costs of changing industries between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8, No.6, pp. 1785-1803.
- Everett, J. and J. Watson(1998), “Small business failure and external risk factor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1, No.4, pp. 371-390.
- Ekanem, I.(2013), “Influences on the behaviour of black and minority ethnic (BME) communities towards debt and bankrupt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37, No.2, pp. 199-205.
- Estrin, S., T. Mickiewicz, and A. Rebmann(2017), “Prospect theory and the effects of bankruptcy laws on entrepreneurial aspira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48, No.4, pp. 977-997.
- Fan, W. and M. J. White(2003), “Personal bankruptcy and the level of entrepreneurial activity,”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46, No.2, pp. 543-567.
- Fayolle, A., B. Gailly, and N. Lassas Clerc(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0, No.9, pp. 701-720.
- Finkelstein, S.(2005),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companies: Strategy failure and flawed executives,”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Vol.26, No.2, pp. 19-28.
- Fitzpatrick, P. J.(1932), “A comparison of ratios of successful industrial enterprises with those of failed firm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Vol.2, pp. 598-605.
- Fredland, J. E. and C. E. Morris(1976), “A cross section analysis of small business failure,”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1, No.1, pp. 7-18.
- Garrett, T. A. and H. J. Wall(2006), “Creating a policy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 *Cato Journal*, Vol.26 No.3, pp. 525-552.
- Gaskill, L. R., H. E. Van Auken, and R. A. Manning(1993),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perceived causes of small business failur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1, pp. 18-31.
- Goffman, E.(1963), *Stigma and social identity in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Penguin Harmondsworth.
- Grice, J. S. and M. T. Dugan(2001), “The limitations of bankruptcy prediction models: Some cautions for the researcher,”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Vol.17, No.2, pp. 151-166.

- Guerrero, M. and I. Peña-Legazkue(2019), "Renaissance after post-mortem: the choice of accelerated repea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Vol.52, No.1, pp. 47-65.
- Hall, G. and B. Young(1991), "Factors associated with insolvency amongst small firm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9, No.2, pp. 54-63.
- Harris, S. G. and R. I. Sutton(1986), "Functions of parting ceremonies in dy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9, No.1, pp. 5-30.
- Hayward, M. L., D. A. Shepherd, and D. Griffin(2006), "A hubris theory of entrepreneurship," *Management Science*, Vol.52, No.2, pp. 160-172.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ley New York.
- Heinze, I.(2013), "Entrepreneur sense-making of business failure," *Small Enterprise Research*, Vol.20, No.1, pp. 21-39.
- Hessels, J., I. Grilo, R. Thurik, and P. van der Zwan(2011), "Entrepreneurial exit and entrepreneurial engagement,"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21, No.3, pp. 447-471.
- Hyytinen, A. and P. Ilmakunnas(2007), "What distinguishes a serial entrepreneur?,"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16, No.5, pp. 793 - 821
- Jarrow, R. A. and D. R. van Deventer(1999), Practical usage of credit risk models in loan portfolio and counterparty exposure management. Credit Risk Models and Management, Risk Publications.
- Jenkins, A. S., J. Wiklund, and E. Brundin(2014), "Individual responses to firm failure: Appraisals, grief, and the influence of prior fail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9, No.1, pp. 17-33.
- Justo, R., D. R. DeTienne, and P. Sieger(2015), "Failure or voluntary exit? Reassessing the female underperformance hypothe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30, No.6, pp. 775-792.
- Koçak, A., M. H. Morris, H. M. Buttar, and S. Cifci(2010), "Entrepreneurial exit and reentry: An exploratory study of Turkish entrepreneur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15, No.4, pp. 439-459.
- Lane, W. R., S. W. Looney, and J. W. Wansley(1986), "An application of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o bank fail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10, No.4, pp. 511-531.
- Lee, S. H. and Y. Yamakawa(2012), "Forgiving Features for Failed Entrepreneurs vs. Cost of Financing in Bankruptc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52, No.1, pp. 49-79.
- Lee, S. H., Y. Yamakawa, M. W. Peng, and J. B. Barney(2011), "How do bankruptcy laws affect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6, No.5, pp. 505-520.
- Li, Y.(2011), "Emotions and new venture judgment in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Vol.28, No.2, pp. 277-298.
- Luoma, M. and E. K. Laitinen(1991), "Survival

- analysis as a tool for company failure prediction,” *Omega*, Vol.19, No.6, pp. 673-678.
- Maitlis, S. and S. Sonenshein(2010), “Sensemaking in crisis and change: Inspiration and insights from Weick (1988),”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47, No.3, pp. 551-580.
-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4, No.1, pp. 13-30.
- McQuown, J. A.(1993), A comment on market vs. accounting based measures of default risk. mimeo, KMV Corporation.
- Mellahi, K. and A. Wilkinson(2004), “Organizational failure: a critique of recent research and a proposed integrative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Vol.5, No.1, pp. 21-41.
- Minitti, M. and W. Bygrave(2001), “A dynamic model of entrepreneurial learn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5, No.3, pp. 5-16.
- Mitchell, J. R. and D. A. Shepherd(2010), “To thine own self be true: Images of self, images of opportunity, and entrepreneurial ac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5, No.1, pp. 138-154.
- Morgan, J. and D. Sisak(2016), “Aspiring to succeed: A model of entrepreneurship and fear of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31, No.1, pp. 1-21.
- Odom, M. D. and R. Sharda(1990), A neural network model for bankruptcy prediction. In 1990 IJCNN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pp. 163-168). IEEE.
- Ohlson, J. A.(1980), “Financial ratios and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of bankruptc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pp. 109-131.
- Ooghe, H. and S. De Prijcker(2008), “Failure processes and causes of company bankruptcy: a typology,” *Management Decision*, Vol.46, No.2, pp. 223-242.
- Peterson, R. A., G. Kozmetsky, and N. M. Ridgway(1983), “Perceived causes of small business failures: a research note,”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8, No.1, pp. 15-19.
- Pinches, G. E., A. A. Eubank, K. A. Mingo, and J. K. Caruthers(1975), “The hierarchical classification of financial ratio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3, No.4, pp. 295-310.
- Rogoff, E. G., M. S. Lee., and D. C. Suh(2004), ““Who done it?” Attributions by entrepreneurs and experts of the factors that cause and impede small business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2, No.4, pp. 364-376.
- Rohlin, S. M. and A. Ross(2016), “Does bankruptcy law affect business turnover? Evidence from new and existing business,” *Economic Inquiry*, Vol.54, No.1, pp. 361-374.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 Vol.80, No.1, pp. 1-28.
- Sedikides, C., W. K. Campbell, G. D. Reeder, and A. J. Elliot(1998), "The self-serving bias in relation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No.2, pp. 378-386.
- Shepherd, D. A.(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8, No.2, pp. 318-328.
- Shepherd, D. A.(2009), "Grief recovery from the loss of a family business: A multi-and meso-level theo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4, No.1, pp. 81-97.
- Shepherd, D. A. and M. S. Cardon(2009), "Negative emotional reactions to project failure and the self compassion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46, No.6, pp. 923-949.
- Shepherd, D. A., J. G. Covin, and D. F. Kuratko(2009), "Project failure from corporate entrepreneurship: Managing the grief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4, No.6, pp. 588-600.
- Shepherd, D. A. and D. F. Kuratko(2009), "The death of an innovative project: How grief recovery enhances learning," *Business Horizons*, Vol.52, No.5, pp. 451-458.
- Shepherd, D. A., H. Patzelt, and M. Wolfe(2011), "Moving forward from project failure: Negative emotions, affective commitment, and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4, No.6, pp. 1229-1259.
- Shepherd, D. A., J. Wiklund, and J. M. Haynie(2009), "Moving forward: Balancing the financial and emotional costs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4, No.2, pp. 134-148.
- Shinnar, R. S., O. Giacomini, and F. Janssen(2012),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The role of gender and cul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6, No.3, pp. 465-493.
- Shumway, T.(2001), "Forecasting bankruptcy more accurately: A simple hazard model," *The Journal of Business*, Vol.74, No.1, pp. 101-124.
- Simmons, S. A., J. Wiklund, and J. Levie(2014), "Stigma and business failure: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 career choic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42, No.3, pp. 485-505.
- Simmons, S. A., J. Wiklund, J. Levie, S. W. Bradley, and S. A. Sunny(2019), "Gender gaps and reentry into entrepreneurial ecosystems after business failur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53, No.2, pp. 517-531.
- Singh, S., P. D. Corner, and K. Pavlovich(2015), "Failed, not finished: A narr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venture failure stigmatiz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30, No.1, pp. 150-166.
- Stam, E., D. B. Audretsch, and J. Meijaard(2009), *Renascent Entrepreneurship*. Springer New York.
- Smith, R. F. and A. H. Winakor(1935), *Changes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unsuccessful*

- industrial corporations*: Bulletins No. 51, Bureau of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 Sutton, R. I. and A. L. Callahan(1987), "The stigma of bankruptcy: Spoiled organizational image and its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0, No.3, pp. 405-436.
- Tam, K. Y. and M. Y. Kiang(1992), "Managerial applications of neural networks: the case of bank failure predictions," *Management Science*, Vol.38, No.7, pp. 926-947.
- Ucbasaran, D., D. A. Shepherd, A. Lockett, and S. J. Lyon(2013), "Life after business failure: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business failur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Management*, Vol.39, No.1, pp. 163-202.
- Ucbasaran, D., P. Westhead, and M. Wright(2011), "Why serial entrepreneurs don't learn from failure," *Harvard Business Review*, Vol.89, No.4, pp. 26-26.
- Von Graevenitz, G., D. Harhoff, and R. Webe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76, No.1, pp. 90-112.
- Wagner, J. and R. Sternberg(2004), "Start-up activiti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 milieu: Lessons for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from German micro data,"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38, No.2, pp. 219-240.
- Walsh, G. S. and J. Cunningham(2016),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ship," *Emergence, Evolution and Future Research*, Vol.12, No.3, pp. 163-285.
- Watson, J. and J. E. Everett(1996), "Do small businesses have high failure rat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4, No.4, pp. 45-62.
- Weick, K. E.(1995). *Sensemaking in organizations* (Vol. 3). Sage.
- Wennberg, K. and D. R. DeTienne(2014), "What do we really mean when we talk about 'exit'?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exi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32, No.1, pp. 4-16.
- Wennberg, K., S. Pathak, and E. Autio(2013), "How culture moulds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25, No.9-10, pp. 756-780.
- Weber, E. U. and R. A. Milliman(1997), "Perceived risk attitudes: Relating risk perception to risky choice," *Management Science*, Vol.43, No.2, pp. 123-144.
- Wolfe, M. T. and D. A. Shepherd(2015), "'Bouncing back" from a los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motions, and failure narrativ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9, No.3, pp. 675-700.
- Yamakawa, Y. and M. S. Cardon(2015), "Causal ascriptions and perceived learning from entrepreneurial failur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44, No.4, pp. 797-820.
- Yamakawa, Y., M. W. Peng, and D. L. Deeds(2015), "Rising from the ashes: Cognitive determinants of venture growth after entrepreneurial fail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9, No.2, pp. 209-236.

- Zacharakis, A. L., G. D. Meyer, and J. DeCastro(1999), "Differing perceptions of new venture failure: a matched exploratory study of venture capitalists and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7, No.3, pp. 1-14.
- Zmijewski, M. E.(1984),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22, pp. 59-82.

〈표 2〉 사업실패 국내외 연구 동향

주제	해외 주요 논문	국내 주요 논문(중소기업연구 외)
실패 예측 (bankruptcy prediction)	FitzPatrick(1932), Smith and Winakor(1935), Altman(1968), Deakin(1972), Pinches et al.(1975), Ohlson(1980), Chen and Shimerda(1981), Zmijewski(1984), Lane et al.(1986), Tam and Kiang(1992), Begley et al.(1996), Odum and Sharda(1990), Luoma and Laitinen(1991), Grice and Dugan(2001), Shumway(2001), Anandarajan et al.(2004), Balcaen and Ooghe(2006)	민재형·정철우(2008), 박유성 외(2009), 이영찬(2010), 이장우·권세왕(2011), 박진경 외(2012), 오낙교·박원규(2015), 서근하 외(2014)
실패 전후 감정 (emotion)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 비통함(grief)	하규수(2012), 김재형(2018), 김태경(2019), 김수진 외(2016)
감정 이외 실패 비용 (costs)	재무적비용 (financial costs) 사회적 비용 (social costs) 제도적 장치 (institutions)	김형호·윤현덕(2015), 김종호(2015)
실패 원인 (causes)	(Wagner and Stenberg(2004), Morgan and Sisak(2016), Cacciotti and Hayton(2015), Arentius and Mimiti(2005), Morgan and Sisak(2016), Shinnar et al.(2012), Wennberg et al.(2013), Hessels et al.(2011), Mitchell and Sheperd(2010), Li(2011) Sheperd(2003), Sheperd and Kuratko(2009), Sheperd(2009), Jenkins et al.(2014) Sheperd et al.(2009) Wolfe and Sheperd(2015), Weick(1995), Mattilis and Sonenshein(2010), Sheperd et al.(2011), Cardon et al.(2011), Byrne and Sheperd(2015), Heinze(2013) Ucbasaran et al.(2013), McGrath(1999), Dew et al.(2009), Sheperd et al.(2009) Harris and Sutton(1986), Sutton and Callahan(1987), Goffman(1963), Cope(2011), Singh et al.(2015) Harris and Sutton(1986), Sutton and Callahan(1987)	장수덕(2003), 이장우·이성훈(2004), 정성민 외(2008), 장수덕(2010), 장수덕 외(2008), 신종경·허규수(2013), 린기환·최종인(2015)

<p>실예 후 재창업 경쟁 및 성공요인</p>	<p>Koçak et al.(2010), Yamakawa et al.(2015), Bai et al.(2017), Boso et al.(2019), Guerrero and Peña-Legazkue(2019), Simmons et al.(2019), Danneels and Vestal(2020)</p>	<p>김나미 외(2020), 김인수·이택구(2018), 이종신·김나미(2019), 허제강 외(2020)</p>
--	--	---

〈표 3〉 사업실패 중소기업연구 동향

주제	저자	실패 정의	연구내용
실패 예측 (bankruptcy prediction)	윤주석(199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금흐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김석웅·김재웅(1998)		1992-1994년 76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 다변량 판별분석에 의한 도산예측모형 정립, 모형 예측력 검증
	이광로·문성주(2002)		1998년 말~1999년 초 KOSDAQ 벤처기업 1,747개를 대상으로 기업 가치를 측정하고 예상도산화률을 산출, 벤처캐피탈보다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도산위험이 높음을 입증
	허영빈·심상규(2002)		중소기업의 지식자산이 기업부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실증연구
	김영숙(2003)		읍선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때 환율 변동이 중소기업의 도산화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산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도에 대기업에 비해 10배 높음을 입증
	윤형호·이의영(2008)	범적 파산	준모수 회귀분석을 통해 주유소 휘발유가격의 결정요인 및 토지비용에 대한 수익률이 주유소 폐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곽동철(2013)		2000~201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등급과 예측모형의 정확도 분석하여 거시경제효과를 포함한 모형이 더 나은 모형임을 입증
	이근우 외(2015)		2008~2012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 받은 34,465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을 분석
	곽동철 외(2016)		13년 간 5만개 이상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생존을 분석, 일반창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으며 성별, 고용 및 재무특성, 부채규모, 매출액, 업종 및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도영호 외(2016)		1991년~2013년 사이 실질경제성장률이 중소기업 17개 산업별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초기는 권총자재 도매업이 IMF 이후는 목재, 귀금속, 가구제조업이 가장 큰 반응
실패 전후 감정 (emotion)	김영희·양동우(2019)	범적 파산 사업 처분 지속적 사업 실패	1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24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사이 창업실패두려움의 조절효과와 검토 결과,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에 따라 값이 양(+), 음(-) 값 모두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재
감정 이외 실패 비용 (costs)	이주일·김상준(2018)	사업 중단 사업 처분	개인이 창업 후 재취업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경제적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창업비용이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규수·한정화(2010)	사업 처분 사업 중단	실패로 인한 경력손실, 사회적 손실, 지존감 상실 등 비재무적 비용은 모두 사업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스타테스를 경우 사업의욕에 미치는 그 영향력 이 강해져 사업실패와 그 스타테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 관찰
	용세중(1994)	범적 파산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체계를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원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살펴보고 공제제도에 대한 필요성 역설
	한정화(2017)	범적 파산 사업 처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 제도전 생태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연대보증제도의 개혁을 통해 제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제도 논의
실패 원인 (causes)	이장우·이성훈(2009)	지속적 사업 실패 사업 중단	2,052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생존기업과 실패기업 간 특성과 성장단계별 특성 차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 실패기업은 대체로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기술차별화 전략이 부재하며 외부네트워킹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에는 창업자의 위험감수성향과 자금조달능력 이 실패에 영향을 미쳤고 성장하면서 협력관계, 연구개발이 중요해지며 안정기 이후에는 창업자의 성취동기와 명확한 미래비전 제시가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실패 후 재창업 결정 및 성공요인	-	-	-

